

화순군, 만원 임대주택 행안부 우수 실천 과제 선정

지방소멸 위기 극복 인구유입정책 사업 계획 타당성 달성도 점검·평가 2023년 100호 시작 2026년까지 400호 2년간 지역경제 활성화 간접 효과 이뤄

화순군의 대표 정책인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만원 임대주택 지원 사업'이 2023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성과평가에서 주요 우수 실천 과제로 선정됐다.

10일 화순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인구 감소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3년 사업에 대한 계획 타당성과 성과 달성도 등을 점검하고 평가했다.

평가 결과 화순군을 비롯한 경북 청송, 경남 창녕, 강원 정선 등 4개 지자체의 정책을 우수 실천 과제로 선정해 전국 시·군·구에 확산하도록 했다.

이 중 경북 청송은 사과 기반 귀농인 확대, 경남 창녕은 돌봄 공간 개선과 서비스 강화, 강원 정선은 지역특화형 외국인 근로자 유입 촉진으로 우수 실천 과제에 선정됐다.

호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화순군의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만원 임대주택 지원 사업이 주요 우수 실천 과제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들이 월 1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100호로 시작해 연간 100호씩 2026년까지 총 400호를 공급한다.

2023년 화순군에서 최초로 시작한 이 파격적인 정책은 현재 전남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지난 2년간 사업을 진행한 결과 인구유입이라는 직접적인 성과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간접적인 성과까지 얻을 수 있어 지방소멸 위기를 고민하는 기초지

자체에 꼭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를 통해 재차 인정받았다.

조미화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청년층 유입을 위한 화순군의 정책이 빛을 발하는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으로 청년층의 지역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화순-김선종 기자



체리 선진지 현장 학습 성료 곡성군, 관내 재배농업인 대상

곡성군이 관내 체리 재배농업인 3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간 체리 선진지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10일 곡성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을 통해 강원도 양양군 소재 체리 농장 2개소, 경상북도 상주시 체리 농장 1개소를 방문해 체리 재배기술, 품종 소개, 개화기 냉해피해 관리요령 등을 배웠다.

곡성군은 지난 2016년부터 체리 특화 단지를 육성해 올해 9년차로 육성 초기 식재했던 과원이 성목기에 접어들며 출하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체리 재배는 92농가, 35ha 규모로 경남 경주시에 이어 전국 2위 체리 주요 산지로 떠올랐다.

농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2020년 저비용 체리 전용 간이비가림 시설 규격 3종을 자체 개발하여 수확기 과원에 시설을 보급함으로써 열과(裂果) 피해를 낮추고 있으며 수확기 무렵 지면에 다공질 필름을 피복하여 착색율을 높이는 등 품질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곡성-김대명 기자

문화시설 전시실 대관 모집 화순군, 지역 예술 동호회 대상

화순군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 촉진을 위해 역량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전시 공간을 제공·지원하고자 화순 문화시설 전시실을 대관할 단체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관 신청은 화순군 내외 지역 예술가와 동아리·동호회를 대상으로 하며 군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 예술가들에게 창작의 장을 마련, 침체된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이다.

전시실 대관 기관으로는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과 화순군립운주사문화관으로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은 2025년 3월부터 10월까지 전시 공간 3개실(제1·2전시실, 최상준전시실)을 일주일씩 총 4회 대관이 가능하며 화순군립운주사문화관은 전시 공간 2개실(제2·3전시실)을 일주일씩 총 10회 대관이 가능하다.

모집 대상은 지역 예술가 및 동아리, 화순 지역작가를 우선으로 하며, 기타 지역작가는 후 순위로 선정한다. 선정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하고 각 시설의 대관료는 조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대관 모집 기간은 12일부터 11월 24일까지 모집하며 모집 방법은 방문·우편·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전시실 대관 접수 및 신청 방법은 각 기관(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운주사문화관)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의 예술적 토양을 더욱 풍성하게 가꾸어 가기 위해 이번 대관 신청을 통해 많은 지역 예술가가 활발히 참여하고 자신만의 창의적 시각을 자유롭게 펼쳐나가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리모컨형 LED 전등 설치 봉사 담양군 월산면 복지기동대

담양군 월산면 복지기동대(대장 이웅우)가 지난 6일 거동이 불편한 11가구에 리모컨형 LED 무선 전등을 설치했다.

10일 담양군 월산면 복지기동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편리하게 조명을 켜고 끌 수 있는 무선 조명 장치를 지원해 거동 취약계층의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김민지 월산면장은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는 복지기동대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없는 월산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담양군 월산면 복지기동대원들이 거동이 불편한 가구에 리모컨형 LED 무선 전등을 설치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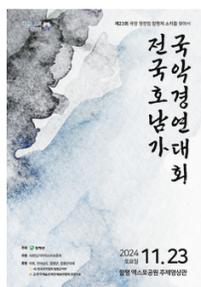
함평군, 전국 호남가 국악경연대회 접수

21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함평군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호남가우리소리보존회(이사장 박문식)가 주관하는 제23회 전국 호남가 국악경연대회가 오는 23일 함평 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개최된다.

10일 함평군에 따르면 판소리 '호남가'는 20세기 초 명창 임방울이 불러 국민 유행가가 된 노래로서 신재효본 '호남가'에서 비로소 '함평천지'로 시작하는 사실이 정착됐다.

이를 기념해 '함평천지'의 고장 함평에



서 지역 전통음악의 계승발전을 위해 2002년부터 매년 국악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남녀 노소 중 판소리를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경연은 참가자의 연령과 수준에 따라 고령부(10분), 신인부(10분), 일반부(12분), 명창부(15분)로

나뉘어 진행된다. 고령부와 신인부는 단심제로, 일반부와 명창부는 예선과 본선을 거쳐 우승자가 선정된다.

명창부 대상 수상자에게는 국회의장상장과 상금 300만원이 수여되며 일반부 대상은 국회 사무총장상장과 상금 100만원을, 신인부와 고령부 대상 수상자에게는 전남도지사상장과 상금 50만원이 각각 주어진다.

참가 접수는 21일까지이며 신청자는 참가신청서와 함께 증명사진 1매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는 함평군민복지회관(함평군 함평읍 남일길 52) 1층에 위치한 호남가우리소리보존회 사무실(061-320-9990)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함평-신재현 기자



단순처리 농·수산물업체 위생점검 영광군,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

영광군은 지난 4일~7일 단순처리 농·수산물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위생점검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이란 식품첨가물이거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탈피·절임 등 단순공정을 거친 농·수산물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모시잎, 썩, 무청, 조기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등록·신고 대상 여부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한 제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용수의 적정성 △식품첨가물(사카린나트륨, 소포제, 보존료 등) 부정사용 여부 등이며 단순처리 농·수산물 위생관리 기본수칙 리플렛 등 홍보물을 활용하여 교육 또한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다.

영광군 관계자는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영업등록(신고) 없이 생산·판매 가능하여 비위생적 취급 등 안전 문제가 있으므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군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화순군, 수능 당일 무료 이동 서비스

장애인 수험생 응시 지원

화순군은 화순군장애인교통약자지원센터(회장 천기선)가 오는 14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수험생을 대상으로 시험장까지 무료차량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들은 대중교통 이용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시험장까지의 이동에 적지 않은 부담이 있다. 장애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 무료차량이동지원 서비스를 기획했다.

이 사업은 장애학생들이 공정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현재 장애인 교통약자지원센터는 차량 지원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며 필요한 인력과 차량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장애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사전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희망자는 화순군 교통약자지원센터로 12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차량 지원 시간은 14일 오전 06시30분부터 09시30분까지이고 이동 구간은 장애학생의 출발지에서 시험장까지다. 무료차량이동지원은 사전 신청을 통해 차량 지원을 요청한 장애학생들에게 차량을 배정한다.

본 사업을 통해 장애학생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으며 이는 이들 수험생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기선 장애인 교통약자지원센터 회장은 "이후에도 장애학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순-김선종 기자